

## 1. 증권산업

## 〈글로벌동향〉

- 2016년 3/4분기중 글로벌 투자은행의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채권 수요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및 전분기대비 증가
- 2016년 3/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

## 〈국내동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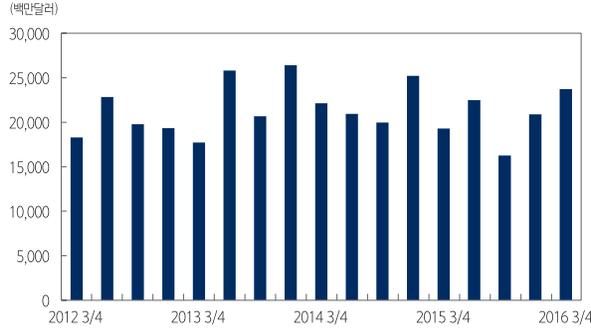
- 2016년 3/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부채 축소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감소
- 2016년 3/4분기중 순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및 판매관리비는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, 부문별로는 위탁매매와 투자은행, 자산관리 부문의 순수익 축소

## 가. 글로벌동향

## 1)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익 현황

- 2016년 3/4분기중 글로벌 투자은행의 IB부문 수수료수익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채권 발행수요 증대에 힘입어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증가
  - 2016년 3/4분기 글로벌 투자은행의 IB부문 수수료수익은 237.3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3.0%, 전분기대비 13.6% 증가
    -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은 2016년 1/4분기부터 상승세를 기록
  - 전체 수수료수익 대비 채권인수 수수료수익 비중은 31.8%로 전년동기대비 8.0%p, 전분기대비 1.2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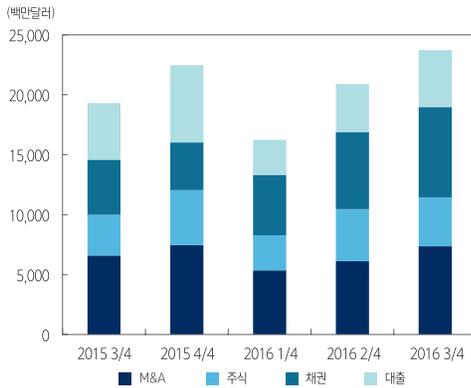
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수수료수익 추이



자료: Thomson Reute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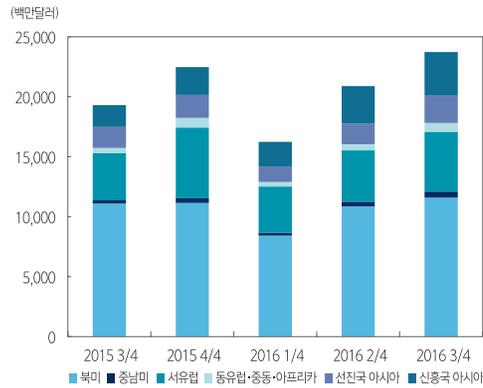
- 2016년 3/4분기중 상품별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주식인수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
  - 전년동기대비 채권인수 수수료(64.5%), 주식인수 수수료(19.1%), M&A 수수료(11.6%), 신디케이트론 수수료(1.1%) 증가
  - 전분기대비 M&A 수수료(20.1%), 신디케이트론 수수료(18.6%) 채권인수 수수료(17.9%)는 증가한 반면, 주식인수 수수료(6.6%)는 감소
  
- 2016년 3/4분기중 지역별 수수료수익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, 특히 신흥국 아시아 지역의 수익기여도가 가장 크게 증가
  - 전년동기대비 신흥국 아시아(99.8%), 중남미(93.1%), 동유럽·중동·아프리카(63.7%), 선진국 아시아(31.0%), 서유럽(27.1%), 북미(4.4%) 지역 수수료수익이 모두 증가
  - 전분기대비 동유럽·중동·아프리카(43.7%), 선진국 아시아(31.8%), 중남미(27.3%), 서유럽(17.0%), 신흥국 아시아(16.1%), 북미(6.7%) 지역 수수료수익이 모두 증가
  - 북미 지역 수수료수익 비중은 감소한 반면, 신흥국 아시아 지역 수수료수익 비중은 증가
    - 동분기 전체 대비 북미 지역의 수수료수익 비중은 48.8%로 전년동기대비 8.7%p, 전분기대비 3.1%p 감소
    - 동분기 신흥국 아시아 지역의 수수료수익은 동분기 15.2%로 전년동기대비 5.9%p, 전분기대비 0.3%p 증가

상품별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 
수수료수익 추이



자료: Thomson Reuters

지역별 글로벌 투자은행 IB부문  
수수료수익 추이



자료: Thomson Reuters

## 2)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 현황

□ 2016년 3/4분기중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전분기에 이어 증가를 보이며 실적 개선이 지속

- 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영업수익은 2016년 2/4분기부터 반등하며 2016년 3/4분기 811.5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1.4%, 전년동기대비 5.7% 증가
- 인력 감축 등 영업비용 절감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.1%, 전분기대비 2.0% 증가한 188.2억달러 기록
- 동분기 ROE는 2.3%로 전년동기대비 및 전분기대비 각각 0.1%p 증가

상위 5대 글로벌 투자은행 손익현황(2016년 3/4분기 기준)

(단위: 백만달러, %, %p)

	JP Morgan Chase	Goldman Sachs	BoA	Morgan Stanley	Citi	계	전분기 대비	전년동기 대비
영업수익 (A)	24,673	8,168	21,635	8,909	17,760	81,145	1.4	5.7
영업비용 (B)	14,463	5,300	13,481	6,528	10,404	50,176	1.6	-1.5
순영업수익 (C)	10,210	2,868	8,154	2,381	7,356	30,969	1.0	19.9
당기순이익 (D)	6,286	2,094	4,955	1,640	3,840	18,815	2.0	4.1
순이익률 (=D/A)	25.5	25.6	22.9	18.4	21.6	23.2	0.1	-0.4
영업이익률 (=C/A)	41.4	35.1	37.7	26.7	41.4	38.2	-0.1	4.5
자본총액 (E)	228,263	75,907	243,679	77,149	212,322	837,320	0.7	3.5
ROE (=D/E)	2.8	2.8	2.0	2.1	1.8	2.3	0.1	0.1

주 : 영업수익 = 비이자영업수입 + 순이자수입(=이자수입 - 이자비용), 영업비용 = 비이자영업비용, 순영업수익 = 영업수익 - 영업비용, 당기순이익 = 순영업수익 - 대손상각 - 법인세 지급

자료: 각사 10K, 10Q 보고서

## 나. 국내동향

### 1) 일반현황

□ 2016년 3/4분기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총 55개사이며, 총임직원수는 35,900명, 국내점포와 해외점포는 각각 1,179개와 63개임

— 동분기말 현재 국내 증권사수는 전분기대비 1개사 증가

•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신설로 외국계지점이 전분기대비 1개사 증가

— 증권사 총임직원수는 35,900명으로 전분기 수준

— 국내점포는 전분기대비 0.3% 감소하였고, 해외점포는 전분기대비 1.6% 감소

국내 증권사 수, 인력 및 점포수 현황

(단위: 개, 명)

	2015		2016			증감	
	3/4	4/4	1/4	2/4	3/4	전분기 대비	전년동기 대비
증권사수	56	56	56	54	55	1	-1
국내법인	46	46	46	45	45	0	-1
외국계지점	10	10	10	9	10	1	0
총임직원수	36,048	36,118	36,192	35,896	35,900	4	-148
국내점포	1,216	1,215	1,187	1,182	1,179	-3	-37
해외점포	66	64	65	64	63	-1	-3
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

2) 재무현황

□ 2016년 3/4분기말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부채 축소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감소

- 3/4분기말 국내 증권사 총자산은 392.0조원, 총부채는 344.6조원을 기록하여 각각 전분기대비 0.7%, 1.1% 감소
- 국내 증권사 총자본은 일부 증권사의 자본금 증가로 전분기대비 2.8% 증가한 47.4조원을 기록
  - 신한금융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자본금 5,000억원, 2,000억원 확충
- 재무현황을 보면, 국내 증권사들이 RP매도와 매도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, 이를 주로 채권 자산에 운용하는 추세가 지속
  - 부채 중 RP매도 비중은 32.0%로 전분기대비 0.1%p 증가, 매도파생결합증권 비중은 28.7%로 전분기대비 0.2%p 증가
  - 자산 중 채권 자산 비중은 47.7%로 전분기대비 1.1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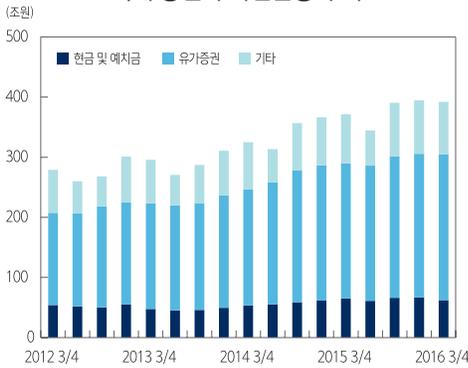
국내 증권사 재무현황

(단위: 조원, %)

	2015		2016			증감율	
	3/4	4/4	1/4	2/4	3/4	전분기 대비	전년동기 대비
자산	371.3	344.5	390.3	394.6	392.0	-0.7	5.6
현금 및 예치금	64.5	60.7	66.1	66.9	62.2	-7.0	-3.6
증권	224.9	224.7	235.5	238.7	242.8	1.7	8.0
주식	15.6	16.2	16.6	17.7	17.8	0.5	14.0
채권	174.8	172.4	181.0	183.8	187.1	1.8	7.0
파생상품 및 기타	81.9	59.1	88.7	89.0	87.0	-2.3	6.2
부채	326.4	298.4	344.9	348.5	344.6	-1.1	5.6
예수	36.1	32.3	37.3	37.2	35.5	-4.5	-1.6
차입	230.0	233.3	248.9	252.2	253.1	0.4	10.0
RP매도	98.6	99.9	108.7	111.4	110.4	-0.8	12.0
매도파생결합증권	88.9	94.0	95.9	99.4	98.8	-0.5	11.1
파생상품 및 기타	60.3	32.9	58.7	59.1	56.0	-5.3	-7.2
자기자본	44.9	46.0	45.3	46.1	47.4	2.8	5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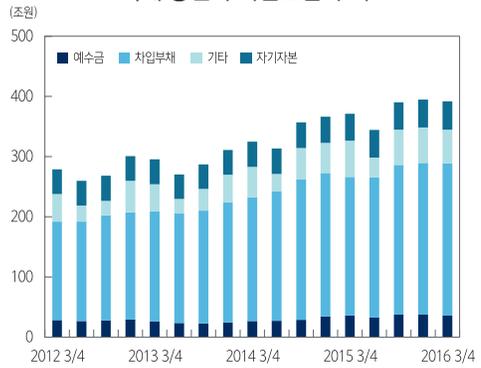
주 : 1) 주식 및 출자금: 주식+신주인수권증서+외화주식, 2) 채권: 국채+지방채+특수채+회사채+외화채권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

국내 증권사 자산운용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국내 증권사 자금조달 추이



3) 손익현황

□ 2016년 3/4분기중 영업순수익 및 영업이익과 판매관리비는 전분기대비 모두 감소

— 3/4분기중 국내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4.2% 감소한 7,460억원을 기록

- 영업순수익은 위탁매매와 투자은행, 자산관리 부문의 순수익 축소로 전분기대비 4.6% 감소한 2조 5,470억원을 기록하였고, 판매관리비는 전분기대비 4.8% 감소

- 동분기중 자기매매 순수익은 채권관련 순수익 축소와 외환관련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관련 순수익 등이 확대되어 전분기대비 2.1% 증가
  - 채권관련 자기매매 순수익은 채권평가이의 축소로 전분기대비 감소(1조 776억원)하였고, 외환관련 자기매매 순수익도 전분기대비 감소(8,494억원)한 반면 파생상품관련 자기매매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1조 4,800억원 증가

국내 증권사 손익현황

(단위: 억원,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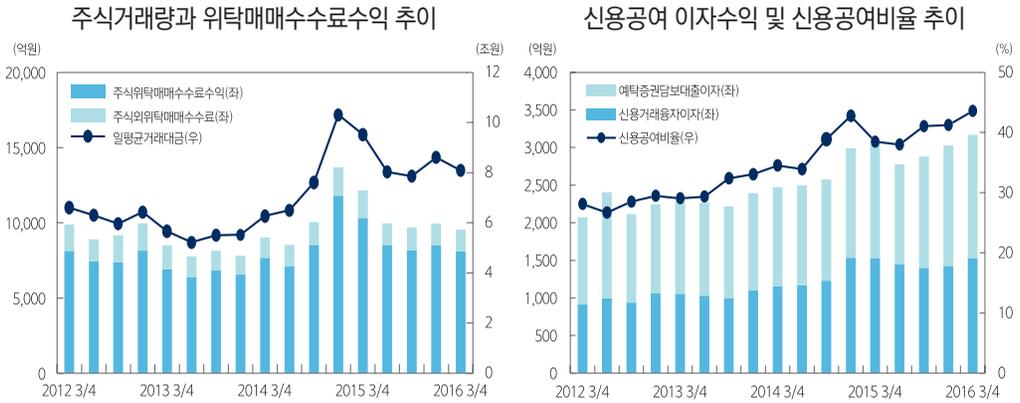
	2015		2016			증감율	
	3/4	4/4	1/4	2/4	3/4	전분기 대비	전년동기 대비
순영업수익	28,729	23,063	25,908	26,712	25,470	-4.6	-11.3
위탁매매	14,453	12,344	11,804	12,378	12,134	-2.0	-16.0
투자은행	4,126	4,323	3,517	5,111	4,688	-8.3	13.6
자산관리	1,222	1,071	1,084	1,168	1,086	-7.0	-11.1
상품매매	1,143	1,033	1,040	1,143	1,180	3.2	3.2
자기매매	6,283	2,968	6,851	4,834	4,938	2.1	-21.4
기타	1,502	1,325	1,612	2,077	1,444	-30.5	-3.9
판매비와 관리비	19,345	19,017	18,012	18,924	18,011	-4.8	-6.9
인건비	12,167	11,490	11,063	11,671	11,136	-4.6	-8.5
영업이익	9,384	4,047	7,896	7,788	7,460	-4.2	-20.5
당기순이익	7,452	3,048	6,067	6,214	5,744	-7.6	-22.9
자기자본이익률(ROE)	1.7	0.7	1.3	1.4	1.2	-0.1	-0.5

- 주 : 1) 순영업수익 = 영업수익 - (판매비와 관리비 제외 영업비용)  
 2) 당기순이익 = 영업이익 + 영업외수익 - 영업외비용 - 법인세비용 - 중단사업손익  
 3) 위탁매매 = 위탁수수료+ 송금수수료 손익 + 신용공여·증금예치금·미수금이자 + 별도예치금평가손익 + 차주매각대금이용료- 매매수수료 - 투자자예탁금이용료 - 투자상담사수수료 - 대주매각대금이용료  
 4) 투자은행 = 인수추진수수료 + 사채모집수탁수수료 + 어음지급보증료+매수및합병수수료 + 지급보증료 + 매입대출채권·대출금·대출채권·대지급금이자 -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 + 리스손익(종금계정) + 채무보증충당금·기타대손충당금환입 및 전입액 - 기타대손상각비  
 5) 자산관리=자산관리수수료+신탁보수-투자자문 및 일임수수료 비용  
 6) 상품매매 =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및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+ 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- 운용위탁수수료+ CMA운용수수료(종금계정)- CMA수탁금이자(종금계정)  
 7) 자기매매= 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+ 파생상품관련손익 + 외환거래손익+ 일반상품 처분·평가손익 + 기타당기순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+양도성예금증서거래손익 +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신용위험·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환입·전입 +채권이자/차입금이자 등 관련 이자손익  
 8) 기타=대리업무보수 - 요구불상환지분관련이자 + 복구충당부채·신탁위험충당금 등 환입 및 전입액+ 기타의 영업수익 및 비용 등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□ (위탁매매 수익) 2016년 3/4분기중 위탁매매 순수익은 신용공여 이자수익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수익의 축소로 전분기대비 감소

- 3/4분기중 일평균거래대금이 8.1조원으로 전분기대비 6.1% 감소함에 따라 주식위탁수수료수익도 전분기대비 4.4% 감소한 8,121억원 기록
- 신용공여비율과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전분기대비 증가
  - 3/4분기중 신용공여금은 전분기대비 8.6% 증가한 20.6조원이며, 신용공여 이자수익은 전분기대비 4.3% 증가한 3,207억원을 기록
  - 신용공여비율은 전분기대비 2.4%p 증가한 43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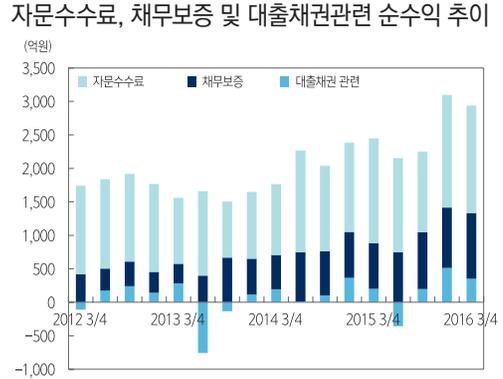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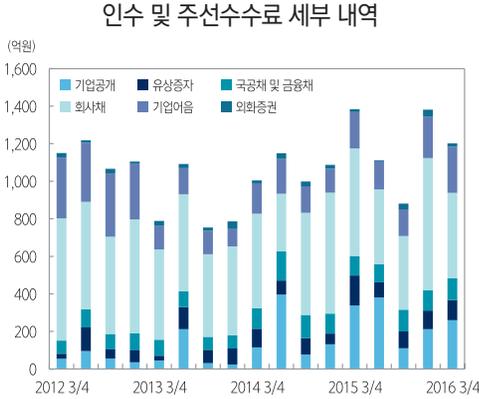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신용공여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용자, 신용거래대주, 청약자금대출 및 예탁증권 담보용자의 총합  
 2) 신용공여비율= 신용공여금/증권사 총자기자본  
 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금융투자협회

□ (투자은행 수익) 2016년 3/4분기중 투자은행 순수익은 인수 및 주선 수수료수익과 자문수수료 축소로 전분기대비 8.3% 감소한 4,688억원을 기록

- 인수 및 주선 수수료수익은 회사채 부문 수익의 축소에 따라 전분기대비 13.0% 감소한 1,202억원 기록
  - 회사채관련 인수 및 주선 수수료수익이 전분기대비 35.5% 감소한 반면 기업공개·유상증자·국공채 및 금융채·기업어음 관련 인수 및 주선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14.3% 증가
- 자문수수료수익은 매수합병중개 수수료수익의 축소로 전분기대비 14.1% 감소한 1,678억원을 기록

- 구조조정 및 금융상담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1.8% 증가한 반면 매수합병중개 수수료수익은 62.2% 감소
- 대출채권 관련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31.8% 감소하였으나 채무보증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9.2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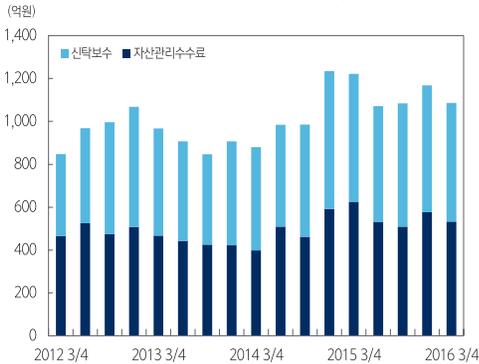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대출채권관련= 매입대출채권이자+대출채권관련이익-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 
 2) 채무보증= 지급보증료+대출금이자+채무보증충당금환입-채무보증충당금전입액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□ (자산관리 및 상품판매 수익) 2016년 3/4분기중 자산관리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상품판매 순수익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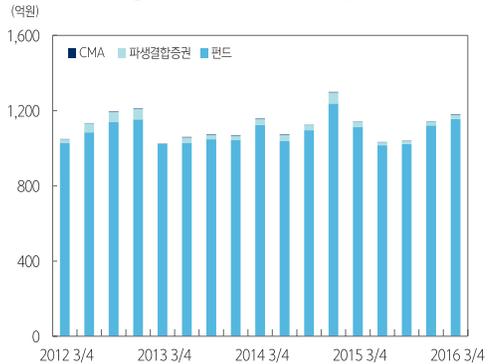
- 자산관리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7.0% 감소한 1,086억원
  - 자산관리수수료와 신탁보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7.5%, 6.6% 감소
- 상품판매 순수익은 펀드판매 호조로 전분기대비 3.2% 증가한 1,180억원
  -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판매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CMA 판매 순수익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

자산관리 부문별 순이익 추이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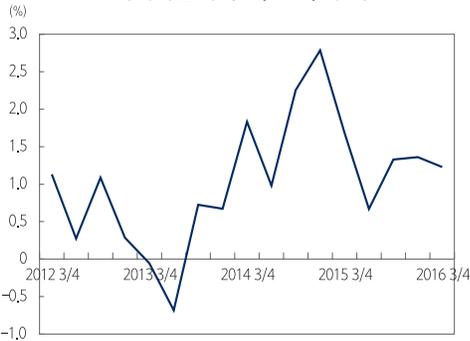
상품판매 부문별 순이익 추이



□ (수익성 및 건전성) 2016년 3/4분기중 증권사의 수익성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,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(순자본비율, 레버리지비율)는 소폭 개선

- 자기자본이익률(ROE)은 2016년 3/4분기 1.2%로 전분기대비 0.1%p 하락
- 평균 순자본비율은 2016년 3/4분기 524.1%로 전분기대비 25.8%p 상승
-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2016년 3/4분기 731.4%로 전분기대비 0.3%p 하락

자기자본이익률(ROE) 추이



재무건전성 추이



주 : 1) ROE는 분기별 수치  
 2) 순자본비율은 개별 기준, 2015년은 신NCR 조기적용 증권사들이 혼재하여 추세값에서 제외  
 3) 레버리지비율 = 총자산/자기자본×100, 총자산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조정총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 
 자료: 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연구 위 원 최순영 (02-3771-0688, soonchoi@kcmi.re.kr)  
 연구 위 원 이석훈 (02-3771-0639, shlee@kcmi.re.kr)  
 선임연구원 김규림 (02-3771-0684, kgyulim@kcmi.re.kr)

증권산업 주요 이슈: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편과 현황

- 증권업 자기자본규제가 2016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내 모든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(구NCR) 대신 순자본비율(신NCR)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받게 됨
  - 감독당국은 2014년 10월 증권업 재무건전성 지표를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개편하고 이와 함께 레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자기자본규제체계를 발표
    - 신NCR은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본대비 순자본(=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의 비율이 최소 100%를 충족하도록 함
    -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조정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,100% 이내로 제한
  - 신NCR제도는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 보유를 기준으로 연결회계기준과 개별 회계기준으로 적용
    - 2016년 9월말 기준 K-IFRS상 종속기업을 보유한 30개사는 연결 신NCR 대상이며, 이외 25개사는 개별 신NCR 대상

자기자본규제 세부 내역

	영업용순자본비율 (구NCR)	순자본비율(신NCR)	레버리지비율
산식	영업용순자본 /총위험액 <sup>1)</sup> ×100	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 <sup>1)</sup> /(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)×100	조정총자산 <sup>2)</sup> /자기자본×100
적기 시정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권고수준: 150%</li> <li>• 요구수준: 120%</li> <li>• 적기시정명령: 10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권고수준: 100%</li> <li>• 요구수준: 50%</li> <li>• 적기시정명령: 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,100% 초과시 경영개선 권고</li> <li>•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 단기순손실 &amp; 레버리지비율이 900%를 초과시 경영개선 권고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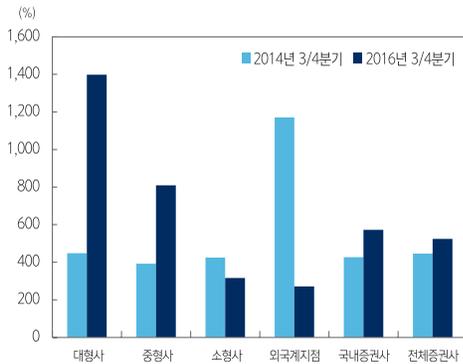
주: 1) 총위험액 = 시장위험액 + 신용위험액 + 운영위험액

2) 조정총자산은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, 종금자산, 대손준비금, 일시계상미수금을 차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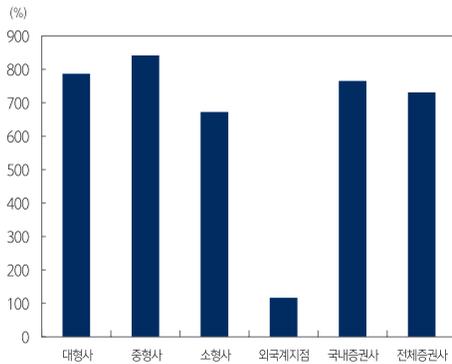
□ 구NCR에서 신NCR로의 지표 변화 양상과 레버리지비율은 모두 증권사 자본규모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

- 증권사 자본규모가 클수록 구NCR 대비 신NCR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
  - 대형사의 경우 448.6%(구NCR, 2014년 3/4분기)에서 1,397.9%(신NCR, 2016년 3/4분기)로, 중형사는 동기간 391.9%(구NCR)에서 809.2%(신NCR)로 증가
  - 반면 소형사는 동기간 425.7%(구NCR)에서 316.7%(신NCR)로 감소
- 중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소형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16년 3/4분기 대형사의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787.0%, 중형사의 경우 841.6%로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비율(731.4%)을 초과
  - 반면 소형사의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672.5%로 중대형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

영업용순자본비율과 순자본비율간 비교



레버리지비율 현황



주 : 1) 자기자본기준 상위5사는 대형, 6~10위는 중형, 나머지는 소형사로 분류  
 2) 레버리지비율은 2016년 3/4분기 기준  
 자료: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

□ 자기자본규제 개편에 따라 증권사의 자본규모별 업무형태 변화가 예상

- 대형사는 순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자본 활용도가 높은 업무를 확대할 가능성 증가
-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의하여 증권사들은 부채를 통한 자산성장률을 과거보다 제한할 가능성 증가